

■ 연구원 소식

○ 문화강좌 안내

: 봄의 기운이 만연한 3월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문화강좌가 3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드리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강좌도 듣고 그 동안 새로이 바뀐 연구원도 둘러보시는 시간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년 03월 26일(土) 16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박남준 시인
- 주제 : 시인의 눈, 시인의 마음

○ 인자요산(仁者樂山) 답사 안내

- 날짜 : 2016년 03월 26일(土) 10시 / 전주 국립박물관 주차장(카풀 예정)
- 장소 : 명량산(김제시 죽산면)
- 내용 : 명량산(51m) 산보 및 소설 아리랑 배경지 답사 후 전주 2시 도착 예정

○ 모자박물관 조현종 대표 방문

: 지난 3월 14일에 전주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모자박물관의 조현종 대표가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 안내와 사업 소개를 진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세부일정 안내

: 6월 26일(日)~7월 1일(金)에 5박 6일간 예정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일원 답사와 관련하여 세부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	일정	답사지
1일	인천 블라디보스톡	12:25 인천 출발 15:25 블라디보스톡 공항 도착 16:30 블라디보스톡 도착 - 답사 18:30 저녁식사 19:30 호텔 투숙 이후 블라디보스톡의 아름다운 밤	루스키 섬 독수리전망대 조명희 기념비 신한촌 울 브린너 생가 해안 - 노을과 술
2일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크노 슬라비얀카	09:00 호텔 출발 - 답사 12:00 점심식사 13:00 블라디보스톡 출발 - 버스 목적지 가는 도중 한인마을 유적 답사 18:30 저녁식사 19:30 호텔 투숙 이후 슬라비얀카의 아름다운 밤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여객터미널, 혁명광장, 잠수 함박물관, 고려사범대학, 시장과 백 화점 <한인마을> 아지미, 시지미, 포세트 치신허 - 최초마을 크라스크노(연주) 등등
3일	슬라비얀카 햇산 크라스크노 우수리스크	09:00 호텔 출발 10:30 햇산 도착 - 답사 12:00 햇산 출발 13:00 점심식사 (크라스크노) 14:00 크라스크노 출발 18:00 우수리스크 도착, 호텔 투숙 18:30 고려인과 함께 만찬 - 밤을 새워	두만강철교(한중러 국경) 햇산역 라즈돌리노예(하마탕) 88국제여단 숙영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4일	우수리스크	09:00 호텔 출발 - 우수리스크 답사 12:00 점심식사 13:00 우수리스크 답사 16:02 우수리스크 출발 (시베리아횡단열차)	이상설 유허지, 발해성터, 최재형 고택, 전로한족총회 개최지, 고려사 범전문학교 등 고려인 유적 러시아정교당, 4월참변 유적지 등 러시아 유적
5일	하바롭스크	01:15 하바롭스크 도착 01:30 호텔 투숙 09:30 호텔 출발 - 하바롭스크 답사 12:00 점심식사 13:00 하바롭스크 답사 18:00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 이후 하바롭스크의 아름다운 밤	한인사회당 관련 유적지김알렉산드 라 관련 유적 강제이주 관련 유적지 김일성부대 숙영지 볼로차예프전투 유적지 하바롭스크 도시 관광 아무르강 유람
6일	하바롭스크 인천	08:00 호텔 출발 09:50 하바롭스크 공항 출발 11:45 인천공항 도착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해를 기약...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

일 시	내 용	비 고
4월 19일	잘 돼 갑니다 / 효자동 이발사	
5월 18일	꽃잎	
6월 25일	태백산맥	
7월 中	답사(추후 계획공지)	
8월 15일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쉼들러 리스트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

일 시	내 용	비 고
4월 13일	화암사와 불명산(해발 480m / 완주군 경천면)	
5월 21일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8월 20일	봉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9월 24일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10월 22일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11월 19일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12월 17일	쑥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회원 소식

○ 박해성 회원 장녀 혼인

: 지난 3월 19일(土)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 웨스턴베니비스 7층에서 박해성 회원의 장녀 박현정 양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의 마음까지 담아 축하를 전해 주었습니다.

○ 임대빈 회원 장남 혼인

: 3월 19일에는 임대빈 회원의 장남 임인혁 군의 혼인도 있었습니다. 12시 30분에 천호성지 부활성당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연구원 행정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의 마음까지 담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3월 21일(月) : 주간회의

○ 03월 21일(月) ~ 25일(金) : 연구원 자료실 도서 분류

○ 03월 26일(土) : 오전(인자요산 소모임) / 오후(문화강좌)

■ 옛 詩와의 만남

山中與幽人對酌 산중에서 숨어사는 사람과 대작을 하며

兩人對酌山花開 두 사람이 대작하니 산꽃이 피고
一杯一杯復一杯 한 잔, 한 잔, 또 한 잔.....
我醉欲眠卿且去 나 취해 잠자고 싶으니, 그대는 갔다가
明朝有意抱琴來 내일 아침 생각나거든 거문고나 안고 오게.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자(字)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청년시절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현종(玄宗)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다시 추방을 당해 방랑하면서도 시작(詩作)을 계속하였다. 두보(杜甫)와 친분이 두터웠다. 두보의 시풍이 사실적임에 반하여, 이백은 낭만적인 기풍이 농후해 뒷날 '시선(詩仙)'으로 불렸다.

■ 감 상

- 이백의 일생은 가족을 떠나 술과 벗과 달과 시로 아롱진다. 이 시는 세상에 걸림도 얽매임도 없이 대자연인(大自然人), 대자유인(大自由人)으로 살아갔던 이백의 낭만적인 면모가 유감없이 표출된 작품이다. 특히 두 번째 구절인 '一杯一杯復一杯(일배일배부일배)'는 예로부터 술꾼들 사이에 널리 회자하던 구절이다.

이백이 산중에 숨어살다가, 어느 은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지었다. 뜻이 맞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자니, 이 날의 술자리를 빛내려함인지 산꽃이 때맞춰 핀다. 더욱 흥에 겨워 한 잔, 한 잔, 다시 한 잔..... 연달아 잔을 기울이는 두 사람이다.

얼마나 마셨을까? 취기에 찾아든 졸음으로 이백이 한 마디 던진다. "내가 지금 취했으니, 그대는 가시게. 그리고 내일 또 술 생각이 나거든, 거문고나 안고 오시게!"

자못 분별이 없는 경지이다. 손님이 갈 때까지 기다리며 대접해야 할 의무도 없는, 즐리면 자고 눈 뜨면 함께 격의 없이 술 마시는, 그런 대자유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스스로없이 내뱉는 당부이다. 그리고 내일 또 술 생각이 나면, 거문고를 챙겨와 더욱 신명나는 술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당부이다.

■ 역사속의 오늘

○ 암태도의 송곳, 서태석 1924. 3. 27

목포에서 서쪽으로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섬 암태. 한때 섬에 사는 사람이 일만을 넘었으나 지금은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암태도는 90여년 전 섬 전체를 휘감고 종래에 조선 팔도를 흔들었던 암태도 소작쟁의를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다 암태에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의 '사람됨'을 인정받았던 섬이기도 하다. 1920년대 당시 암태도에는 문재철이라는 유력자가 있었다. 그는 약 140 정보의 농지를 소유한 대지주로 많은 농민들이 그 소작을 부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강원도 철원과 충청도 당진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그는 무려 7~8할의 소작료를 징수했고 이 터무니가 없는 착취에 맞서 송곳처럼 솟아난 이가 서태석이었다. 그는 20대의 이른 나이에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암태면장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일제 부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1920년에 3·1만세운동 1주년 행사를 준비하다가 감옥에 다녀올 만큼 불령선인에 가까운 인사였다.

1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그의 머리는 더욱 불온(?)해졌다. 민족의식에다가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까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암태는 지주와 마름의 횡포 하에 온 섬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자작농 집안이었지만 기꺼이 소작농들의 지도자가 된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길쭉하여 외모부터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섬이나 지리산 피아골 같은 데는 더러 엉뚱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장골들의 후예(민중봉기의 주모자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암태도 소작쟁의 주모자 서태석도 그런 사람의 후손이다."

(송기숙 산문집,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 중)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4할로 내릴 것과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 비용은 지주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우리 역사에서 '아랫것들'의 요구가 순순히 받아들여진 적이 없듯이 지주들은 최규석의 웹툰 송곳에 나오는 회사 임원의 말처럼 소작인들을 겁박했다.

"더 달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고 싶으면 애초에 아무 것도 안 쥐어주면 돼"

굶어죽으나 맞아죽어나 매 한가지였을 암태도 소작회원들은 **1924년 3월 27일 암태면 동와촌리에서 지주 규탄 면민대회를 열고** 한물결로 일어섰고 그 중심에 서태석이 있었다. 동학군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선대의 한을 품고 암태로 들어왔고 형제들이 한 섬에 모여 살지도 못하고 각각 다른 섬에 거주했던 남모를 사연을 지닌 서태석은 소작인의 단

결을 목청껏 외치며 지주들의 횡포와 수탈을 고발했다. 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소작민들과 문재철측 인사들이 충돌하자 일제 관헌이 개입한다. 소작인 50여명이 체포됐고 그 가운데 13명이 목포로 끌려가 투옥된다.

이에 전 섬이 들고 일어났다. 청년회고 부인회고 할 것 없이 천 명이 넘는 섬 사람들이 섬을 떠나 물으로 나와 '아사동맹'(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때 불렀다는 소작인의 노래. "뭉치어라 작인들아 뭉치어라 우리의 부르짖음 하늘이 안다..... 뼈빠지게 일하여도 살수가 없거든 놓고먹는 지주들은 누구의 덕인가."

섬사람들은 연행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 안에서 또는 법원 앞마당에서 굶어죽자는 결의였다. 남녀노소가 정말로 밥 한 술 넘기지 않고 "대지를 요로 삼고 창공을 이불 삼아" 버텼다. 일제 경찰도 혼비백산했고 암태도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국이 들썩였다.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를 위시한 당시 시국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다투어 변호를 자청했고 조선팔도와 해외에서 성금이 답지했다. 급기야 일본 경찰이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 문재철과 소작회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게 된다.

"소작료는 4할로 인하하고, 구속자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며, 비석은 소작회 부담으로 복구한다." 소작인들의 승리였다.

서태석은 소작쟁의 배후조종자로 검거되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1927년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서기로 선출된 후 같은 해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조선 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그 와중에 일제에 의한 검거와 고문, 투옥의 반복으로 말년에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렸다.

그는 암태도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싫다며 누이가 살던 압해도로 거처를 옮겼다. 1943년 광복을 두 해 앞둔 어느 날, 그는 논두렁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이 때 그의 나이 환갑을 한 해 앞둔 신아흡이었다.

소작료 인하를 부르짖으며 소작농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서일까. 벼 포기를 굳게 움켜쥔 채였다.

그의 조선공산당 행적 때문에 일제 때는 물론 해방 이후 반세기 가까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가 그의 독립운동 행적을 인정받고 현충원에 몸을 누이게 된 것은 그가 사망한 지 꼭 60년 되던 해, 2003년이였다. 이제 그는 움켜쥔 벼 포기를 놓고 편히 쉬고 있을까.

1924년 3월 27일 남도의 섬 암태도에서 송곳 하나가 농민들의 잠을 깨웠다.